

우승희 영암군수 “혁신으로 군민 자부심·삶의 질 향상”

●민선8기2주년

‘군민이 군정의 주인’ 실현 집중...국·도비 확보 ‘총력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 성과 등

우승희(사진) 영암군수가 민선 8기 출범 2년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구호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이끌며 굵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구호로 출범해 ‘군민이 군정의 주인’이라는 상식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영암왕인문화축제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선정, 한우 1+ 등급 이상 출현율 77% 전남 1위, 2023 대한민국 쌀 페스타 대상, 영암달빛축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2024년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3계급 석권 등으로 군민 자부심이 높아졌다.

영암군이 내놓은 고향사랑기금 이색 답례품과 기금활용사업도 큰 관심을 받



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천하장사 식사데이트권’, ‘F1레이서와 서킷 체험권’은 지역자원을 심본 활용한 아이디어 답례

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가운데 영암군은 예산 8천억 시대를 열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88개 사업 2천4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숙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는 2년 전 787억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4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282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178억원 ▲안전제



영암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한 농정대전의 프로젝트 공청회 모습. <영암군 제공>

함관 150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52억원 등이 굵직한 성과로 손꼽힌다.

마한 연구 거점 클러스터가 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4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규모로 2

027년 삼호읍 나불리에 설립된다. 아카데미, 문화재 전문도서관, 연구·교육시설,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도 이끌어냈다. 영암군 민·

관의 유치 활동이 시너지효과를 내며,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35년 만에 역사를 새로 쓰는 기록이 됐다.

생태탐방원 유치로 2026년까지 영암군 서면 동구림리 왕인박사유적지 인

근에 교육관·생활관·자연놀이터 등을 갖춘 생태자원 체험시설이 조성된다.

민선 8기 영암군민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다양한 통계 수치에서 드러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초극빈층이 2021년 9.6%에서 2년 만에 27%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4%에서 24.7%로 10%p 이상 증가했고, 실업률은 2%에서 1.3%로 감소했다.

영암군민의 지역 내 이동을 돕는 교통인프라 확충도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영암군은 올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DRT)으로 ‘영암콜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의 공약은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48%에 달하는 공약이행률로 전국 군 지역 평균 3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의 내일을 바꿀 다양한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영암군을 지역사회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군 ‘다시마 활용 소주 제안’ 적극행정 선정

공무원 채용시험 개선 우수 인재 확보 사례도

완도군이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을 제안한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강철 홍보팀장, 김진규 행정팀장, 고금면 복지팀을 202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뽑았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부서와 군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적극행정 16개 사례 중 예산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9개 사례(개인 7, 협업팀 2)에 대해 온라인 투표와 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기획예산실 조강철 홍보팀장은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을 지역 향토기업 보해양조주에 제안했으며, 다시마 소주(다시, 마주) 출시로 다시마 재고는 줄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다시마 소주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장보고장학회에 기탁하기로 약정돼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도군과 보해양조주 간 ‘다시, 마주’ 공동 특허 출원으로 세계 시장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행정지원과 김진규 행정팀장은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전남 최초로 인·

정성 검사 도입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 제도를 개선해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통 공무원 채용 과정은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이뤄지는데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면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파악해 면접에 활용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공직에 부적응자를 채용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금면 맞춤형 복지팀은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102가구를 지원할 수 있

는 주유권을 받았으나 공급 주유소가 완도읍에 위치하고 배달이 어렵게 돼 주유소 대표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취약 계층 가구에 난방유가 직접 배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쳤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성과상여금 한 등급 상향 ▲근무성적 평정 실적 가점 ▲포상 휴가 ▲희망 부서 전보 ▲국의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김현철 부군수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협업 사례를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행정경험 바탕...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김선주 진도부군수 취임

김선주(사진) 제32대 진도부군수가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김선주 부군수는 함평군 출신으로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33년 전인 1991년 8월 고향 함평에서 9급 공채로 첫 공직생활을 시

작했다. 또한 전남도 일자리정책실 규제개혁팀장, 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조정실 의회협력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탄탄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 일자리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진도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김 부군수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예향의 본고장인 보배섬 진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진도군이 계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훈 기자

신안군, 최초 여성 면장 탄생 ‘눈길’

박향란 신의면장 임명

신안군은 2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989년 무안군에서 분군한지 55년 만에 최초 여성 면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여성 면장 1호, 박향란(사진)

신의면장은 신의면 출신으로 1992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다문화가족센터장·홍보팀장, 신의면부면장 등을 역임했다.

박향란 면장은 특유의 세심함과 배려심을 갖췄으며, 뛰어난 추진력과 친



화력은 주위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박향란 신의면장의 섬세함과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이 신의면민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미칠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장마철 피해 최소화” 당부

상습침수 지역 등 주요 들녘 배수로 현장 점검

강진원 강진군수가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 달 29일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고 각종 시설물, 용·배수시설 정비,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피해 예방 대책에 돌입했다.

강 군수는 상습침수 지역인 강진

읍 초동마을 들녘을 찾아 논 침수 상황과 배수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호우로 인한 농가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강진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73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 가입 회

나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도모

나주시는 2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월에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자의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춰 하반기인 7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재 임차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전년도 카

망 능가 품목별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강진원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관리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월18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손해 최소화를 위해 국비 3억7천500만원, 예비비 9천400만 원 등 총 5억5천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 330농가에 지급을 완료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취약계층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 운영

12월까지 신청...수여 영상 제공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일 “전국 특수학교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화가 된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비대면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협력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총 3차 시로 구성됐다. 영상자료, 활동지, 체험키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여 영상도 함께 제공돼 장애 청소년의 환경·생태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생태계를 주제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산림·해양·갯벌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또한 씨앗방 만들기, 팝업북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생태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각 지역별 담당 기관에 할 수 있으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는 전남, 경남, 제주도의 지역 아동센터와 특수학생이 포함될 학습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희망하는 기관은 7월12일까지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는 교보재 세트와 비대면 영상자료가 제공된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특수학교와 사회적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로서, 이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과 연안의 생물 등 생물자원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3기 주니어 도슨트 양성과정’ 지원자를 7월12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